『탈경계 인문학』 제3권 2호
(2010. 06): 129-157

탈경계 인문학의 관점에서 본 김연아 신드롬

장미영

1.

밴쿠버 동계올림픽은 대부분의 한국민들에게 2002년 한일 월드컵 이후 국민적 자부심을 공고히 해 준 최고의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 올림픽 참가사상 최고의 선수역량을 보여준 동시에 국가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제효과의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그리고 - 전 국민의 체감지수에 따르면 - 그 클라이막스는 단연 김연아 선수의 경기였다. '2월 26일'의 감동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으나, 김연아 선수가 우리 사회에 던진 화두, 또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여파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 미학적 감수성을 한 단계 향상시켰다는 것 이외에도 교육경쟁력, 정정당당함, 긍정의 의미, 애국주의, 국익, 경제효과, 개인과 국가의 브랜드 가치 상승 등, 국내외 언론의 기사를 장식하는 일련의 표현에 김연아 선수의 무게감은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이 다양한 스펙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김연아의 경제적 효용성을 둘러싼 견해가 특히 두드러진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 산

장미영 이화여자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7-361-AL0015)

www.kci.go.kr

업본부가 산정한 바에 따르면, 동계올림픽에서 우리 경제가 거둬들인 전체 파급효과는 6조 495억원인데, 그 중 김연아 금메달의 효과는 5조 2천 350억원으로 전체의 86.5%에 달한다.[1] 하지만 비단 한국인 뿐 아니라 경기를 관심 있게 지켜본 전세계인에게 준 감동의 의미는 일부 연구기관이 만들어내고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추상적 숫자에만 갇혀서는 안 된다. 오히려 지금은 이제껏 언급되지 않은 숨겨진 함의를 찾아내어 진정한 사회적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 절실한 시점이다. 김연아 선수는 비단 고난도 프로그램을 '드디어' 완수해낸 스포츠인, 또는 테크니션에 그치지 않고, 전세계인이 공유할 수 있는 '무엇'을 구현했다. 다시 말하면, 그녀가 은반위에 가시화한 것은 지금까지 어떤 피겨스케이터가 이룩한 것과는 다른 특별한 방식의 공감각적 예술이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김연아는 새로운 문화 아이콘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

이 지점에서 본 논문은 김연아의 문화적 가치를 인문학적 콘텍스트에서 재발견 또는 재구성하려는 시도이다. 이 시도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김연아 선수가 전형적 서양 스포츠인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그 역사가 일천한 한국 출신으로 수차례 세계기록을 경신하는 경이로운 역사를 썼다는 상투적인 정황에만 있지 않다. 김연아가 인문학의 주목을 끄는 까닭은, 빙판을 무대로 한 자신의 예술을 통해 오늘날의 삶에서 대두되는 '경계넘기'의 화두를 직접 던져주었을 뿐 아니라 그 스스로 이

1) 김연아의 브랜드파워는 네이밍라이센싱 제품이나 광고 모델 등에서 기업 마케팅 섭외 1순위라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물론 또 다른 연구에서도 김연아에 대한 평가는 대동소이하다. 국가 브랜드 이미지가 1% 높아지면 12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하는데, 김연아의 금메달로 국가 브랜드가 0.5% 상승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 그녀의 경제효과는 6억으로 계측된다는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이동훈 수석연구원은 "예술성이 중요한 피겨 스케이팅은 어떤 종목보다도 '프리미엄'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그녀의 기여는 결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기사 「김연아 동계올림픽 경제효과 5조 2350억원」〈http://news.donga.com/3/all/20100308/26689655/1〉과 「김연아, 글로벌 브랜드로」〈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27/2010022700029.html〉 참조.)

www.kci.go.kr

‘탈경계’ 현상의 범례를 모범적으로 실현해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김연아 현상의 핵심을 ‘탈경계’로 규정하고 그 특징, 범주, 영향 등을 분석함으로써 이 신드롬의 실체에 접근하는 것은 어쩌면 인문학의 시의적이고 필연적인 과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물론 이때 반드시 전제되어야할 조건은, 이 시도의 중심 대상이 김연아라는 사적 개인이 아니라 그녀가 구현한, 또는 그녀와 더불어 구현된 예술이라는 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상이한 차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 글은 왜 우리는 김연아에, 더 정확히 말해 김연아가 만들어낸 4분 9초의 예술에 열광하는가, 또는 열광해도 되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에 대한 인문학적 답변을 이끌어 내고자 한다. 물론 여기서 김연아 현상에 대한 완결된 학문적 연구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을 ‘감히’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김연아의 예를 통해 ‘탈경계’라는 시의적 현상에 대한 학문적 접근가능성을 다각도로 타진함으로써, 앞으로 재현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문화적 현상들에 대한 인문학적 분석의 틀을 제고하고자 한다. ‘탈경계’라는 개념을 김연아 현상에 적용하는 경우를 상정할 때, 논의의 범주 혹은 차원에 대한 질문이 대두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이화인문과학원의 HK사업인 ‘탈경계 인문학’이 설정한 ‘지구지역성’, ‘젠더’, ‘다매체’의 세 영역을 기본 범주로 하여 이 개념을 풀어가고자 한다. 이 세 영역 안에서 탈경계를 둘러싼 어떤 구체적 질문들 내지 주제들이 제안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존 방법론 또는 틀이 여기서 유효할 수 있을지를 타진해 가면서, 김연아가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서 갖는 내재적 의미를 밝혀줄 수 있는 방법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www.kci.go.kr

2.

김연아의 경계넘기는 일차적으로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종목 자체의 특성에서 두드러진다. 피겨는 스포츠와 예술의 경계영역에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스포츠의 예술성은 인간의 감각을 매개로 하여 성립되고 전달되기 때문에 매체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된다. 이 같은 이유에서 본고는 김연아의 탈경계 현상에 대한 논의를 매체적 관점에서 시작하고자 한다. 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쿠베르탱(Pierre de Coubertin)이 신체와 정신의 재결합을 강조했을 때, 그 진술은 이미 스포츠의 예술적 잠재력 또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스포츠가 단순한 신체의 훈련이 아니며 또 거기서 정신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다면, 스포츠는 신체를 통해 정신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일정한 예술적 속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스포츠가 예술인가' 또는 '무엇이 스포츠와 예술을 구분해 주는가'라는 분화되고 전문적인 질문은 접어두더라도, 양자의 상호관계는 각각의 수행자, 즉 스포츠 선수와 예술가의 유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스포츠 선수와 신체를 매체로 사용하는 예술가는 반복된 훈련을 통해 몸을 조율한다는 점에서도 일정한 공통 조건 아래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의 논지에서 중요한 관점은 미학적 기준에서 비롯되는 두 영역의 유사성이다. 일반적 눈높이에서 관찰해도 미학적 성취, 즉 아름다운 동작을 창출하는 것이 주요 목표 중 하나인 스포츠 종목은 얼마든지 있다. 리듬체조나 다이빙, 수중발레, 그리고 피겨스케이팅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이 스포츠는 신체가 달성하는 기술의 수행도와 더불어 동작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움과 우아함, 리듬감과 정확도, 조화, 완벽한 예술(연기) 등 미학적 요소들에 따라 평가된다(Anthony 103).

피겨스케이팅 역시 신체의 역량 뿐 아니라 거기서 파생되는 표현력의 합(合)으로서 예술과 스포츠의 양면성을 동시에 보여준다. 운동선수의

www.kci.go.kr

자질이 균형감, 시간성, 빠른 동작 속에서의 심신의 통제에 있다는 토인비(Arnold Toynbee)의 진술에 따르면, 훈련을 통한 신체의 균형과 절제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피겨스케이팅은 스포츠의 일종이다(Anthony 101).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 춤의 요소인 음악적 감수성, 회화적 상상력과 표현력, 그리고 이 개별 능력을 아우르는 창조적 독창성이 전제된다. 그 때문에 (종합) 예술적 속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압축하면, 스포츠의 일차적 공식이 힘과 기술에 있다면, 피겨스케이팅은 이 스포츠의 논리에 미학적 요소, 즉 아름다움의 차원을 도입한다.[2)]

그러나 피겨스케이팅을 스포츠를 넘어선 예술로 간주할 수 있다면 보다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먼저 이 스포츠에는 다른 스포츠 장르와 구분되는 일정한 틀, 즉 전통적으로 예술작품의 성립조건인 형식이 지배한다. 물론 그것은 몇 개의 동작을 단순 반복하는 신체 훈련이 아닌, 일련의 동작이 조합되는 인위적 '구성'을 기본틀로 하며, 또 여기에는 '연기'가 따른다. 스케이터가 구현하려는 내용은 연기를 통해 관객에게 전달되고, 이 극적 퍼포먼스는 일종의 카타르시스라고 할 수 있는 미적 감동을 남긴다. 더 나아가 - 이것은 예술의 지속적 잠재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 현실을 넘어서는 관조의 상태로 관객을 이끌어준다는 점에서도 피겨스케이팅은 예술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다.[3)]

이렇게 보면 김연아의 첫 번째 탈경계 행보는 스포츠와 예술을 아우르는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장르에서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겠다. 여기서 착

2) 주지하다시피, 이에 따라 피겨 종목의 평가는 기술적 요소와 예술 점수, 두 가지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예술성의 근거로는 전체적으로 조화로운 구성, 음악과의 일체감, 동작의 아름다움, 연기 등을 꼽을 수 있다.

3) 연극적 요소에 음악적 요소를 더한 피겨의 종합예술적 특성을 어느 애호가는 이렇게 피력했다. 스케이터가 음악에 맞추어 '연기'한다는 점에서 피겨스케이팅은 "음악에 내재된 스토리를 들려주는 예술성을 동시에 갖춘 은반 위의 오페라"라는 것이다. (송두헌. 「우리도 이런 '문화적 아이콘'을 갖다니」.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26709.html〉)

www.kci.go.kr

안하여 - 예술을 창조하고 감상하는 일련의 과정은 신체의 감각기관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 '매체'의 개념을 분석과정에 도입하고자 한다. 이때 '매체'는 공간적 · 시간적 배경, 시각과 청각이라는 상이한 범주의 감각 요소, 그리고 이들을 활성화하는 비주얼 이미지와 소리 즉 음악이라는 매체를 모두 아우르는 광범위한 범주에서 사용된다. 피겨스케이팅은 예술적 주체가 표현해 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청각적 요소인 음악을 매개로 하여 신체의 고난도 기술을 통해 시각으로 표현해해는 예술이기 때문이다. 이제 본고에서는 김연아의 지난 동계올림픽 프로그램을 예로 하여 음악과 동작이 개별적 경계를 넘어서 합일되어 새로운 영역으로 승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춤에서와 유사하게 음악과의 일체감이 피겨의 예술성에 결정적인 만큼, 먼저 음악적 시각에서 대상에 접근하고자 한다. 이때 한 가지 간과해서 안 될 점은, 피겨스케이팅에서 선호되는 음악이 대부분 표제음악이라는 사실이다. 최근 피겨스케이팅을 통해 다시 한 번 대중적 주목을 받게 된 작품 「카르멘」(*Carmen*), 「세헤라자데」(*Scheherazade*), 「종」(*The Bells of Moscow*), 「007 제임스 본드 메들리」(*007 James Bond Medley*) 등은 이미 이전부터 익히 알려진 음악이다. 앞서 누차 강조했듯이, 피겨프로그램에서는 비단 기술적 완성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한된 시간에 특정 대상 또는 이미지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형상화되는가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스토리텔링'은 바로 음악의 '표제'와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개개 예술가가 어떤 표제를 취하는가에 따라 프로그램의 표현 방향이 이미 설정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표제의 선택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되는 질문은, 김연아의 프리 프로그램에 사용된 거슈인(George Gershwin)의 피아노 협주곡 바장조(*Piano Concerto in F Major, 1925*)가 단연 두드러진다. 「랩소디 인 블루」(*Rhapsody in Blue*) 등 그의 기악음악은 대부분 심포닉 재즈 장르로서 표제, 즉

www.kci.go.kr

제목을 가지고 있으나 특이하게도 이 피아노 협주곡에는 표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표제란 작곡자가 감상자의 자의적인 해석을 배제하는 한편 자기 고유의 음악적 정서의 범주와 의도를 알려주기 위해 취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4] 여기서 착안하여 이제 작곡자가 표제를 붙이지 않는 의도를 역방향으로 확대해석해 볼 수 있다. 이 경우 표제가 없는 음악은 감상자 또는 해석자의 상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고 할 수 있다. 이 관계는 피겨스케이팅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표제가 없는 음악을 사용할 때 생길 수 있는 부담은, 스케이터가 연기를 통해 구체화하려는 대상 혹은 주제가 관객에게 자연스럽게 전달되지 않아 미적 감동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이것은 안무가, 스케이터, 관객 모두에게 표현과 해석의 자유의 폭을 훨씬 넓혀주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김연아의 경우 곡 선정은 크게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스토리나 이미지를 개입시키지 않음으로써 - 이른바 '절대음악'의 경우에서처럼 - 음악과 추상적 이미지의 일체감을 유도하면서, 소리와 동작의 순수하고 절대적 아름다움의 세계에 몰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고 - 결과가 증명해주었듯이 - 그 미학적 효과는 정점에 이르렀다.

안무가 데이비드 윌슨(David Wilson)이 "너무 강해서 그동안 여자 선수들이 사용한 적이 없다"고 평했던, 재즈와 클래식을 접목한 이 피아노 협주곡은 한편으로는 리듬, 즉 힘, 그리고 다른 한편 멜로디 즉 서정성

4) 이에 상응하여 표제음악이 제시하는 주제를 노출하는 방식으로 스케이터의 의상도 결정된다는 사실을 각종 경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에서 표제음악은 특정한 분위기나 이념, 강령 등 음악외적 내용과 관련된 음악을 지칭한다. 이 개념의 애매함과 역사적 유효성을 둘러싼 논의를 접어두고 간단히 설명하면, 표제음악에서는 대체로 작곡가 스스로 작품에 제목을 붙이고 내용이나 주제를 설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바로 이 언어적 제시를 표제 즉 프로그램이라고 지칭한다.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의도는, 작곡자가 제시하는 것 이외에 감상자가 자의적인 해석을 시도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Finscher 1821). 이외에 상세한 것은 필자의 졸고 237-262 참조.

www.kci.go.kr

의 조화를 이룰 뿐 아니라,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특성이 잠재된 음악이다.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에 정서의 스칼라를 최대한 다양하게 채색하여 선수의 표현력을 증명해야 하는 피겨의 특성에 잘 부합하는 음악적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오케스트라와 섞여도 두드러지는 피아노의 섬세함은 서정성을, 그리고 리듬감은 얼음의 영롱한 이미지를 잘 살려내기 때문에, 빙판예술의 '이율배반적' 효과를 배가시키는 음향적 배경이었다.

김연아의 프리프로그램의 백미는 이러한 음악적 특성을 완벽히 흡수했다는 점이다. 윌슨은 거슈인의 음악을 새로이 구성할 때 '긴장모드'와 '이완모드'를 적절히 배치시켜 극적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렸다.[5] 더 나아가 그가 연출해 낸 음악과 동작의 일체감은 그의 탁월한 공감각적 감수성을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김연아의 연기는 1악장의 도입부가 1분 가량 생략되고 피아노 솔로의 제1주제가 연주되는 시점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피아노에 오케스트라가 합류하기 직전, 프로그램 전체에서 가장 큰 기본점수가 배당된 트리플 러츠+트리플 토룹 콤비네이션이 첫 점프로 등장한다. 4분여 프로그램을 여는 도입부인 첫 점프의 음악 모티브는 이후에도 음악적 포인트로 재차 반복된다. 그런데 전체 동작에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등장하는 점프만을 따로 떼어 놓고 관찰하면, 각각의 상이한 점프에는 음악적 모티브의 변화가 함께 주어진다. 악기구성도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는 피아노만, 두 번 째 트리플 플립 점프에서는 피아노와 관현악을, 그리고 세 번째 더블 악셀+더블 토루프+더블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에서는 다시 피아노 음악만을 교차로 사용하면서 긴장과 이완의 정조를 의도한다.

더욱 특기할 사실은, 음향의 속성에 따라 스케이터의 동작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피아노만 연주될 때는 빠르거나 예민한 동작이 강조된다. 특

5) 이 피아노 협주곡을 윌슨은 앙드레 프레빈(Andre Previn)의 지휘로 피츠버그 심포니가 연주한 1973년의 음반에서 1악장과 3악장을 편집하여 사용했다.

www.kci.go.kr

히 윌슨은 피아노의 스타카토 리듬을 100% 활용한다. 예컨대 후반부 트리플 살코와 트리플 러츠 사이에 자리잡은 스텝부분에서 빙판을 찍는 스텝 연기는 피아노가 반복적으로 스타카토를 연주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 이와 비교될 만하게 대단원을 향해 갈수록 피아노 독주는 약해지면서 협주 또는 오케스트라 파트가 주류를 이룬다. 오케스트라가 강조될 때는 대체로 크거나 강한 동작이 주어지는데, 스파이럴 시퀀스가 이에 대한 적절한 예가 되겠다. 전체 구성의 중간 지점, 즉 오케스트라가 느린 템포로 환상적인 주멜로디를 연주할 때, 온 몸을 한껏 펼치고 공간을 크게 사용하는 스파이럴 시퀀스는 가장 아름답고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이다. 음악과 동작의 일치에 대한 예는 반복적 스핀 연기에서도 잘 드러난다. 스파이럴 시퀀스 직전, 즉 관현악과 피아노가 빠르게 반복되는 대목은 역시 반복적인 플라잉 콤비네이션 스핀 동작과 맞물려 있다. 이와 비슷한 효과는 전체 프로그램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두 동작인 플라잉 싯 스핀과 체인지 풋 컴비네이션 스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피아노와 관현악의 협주로 연주되는 피날레의 반복적 리듬이 절정을 이루는 순간, 두 스핀과 더불어 전체 프로그램은 막을 내리는 것이다.[6] 지금까지 몇 가지 예를 통해 관찰한 바를 요약하면, 김연아는 스포츠와 전통적 예술개념의 외연을 확장했을 뿐 아니라, 인지하기 쉬운 방식으로 공감각을 극대화했다. 음악을 몸으로 연주함으로써 음악적 · 청각적 요소와 시각적 (신체적) 요소를 빙판 위에서 합일시키는 고난도의 예술을 구현했던 것이다. 그 결과 선수 스스로 예술적 승화를 체험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감수성을 대중화함으로써 관객의 미적 감각의 차원을 한

6) 한 일간지 기사는 음악적 변화를 통해 극적 효과와 공감각적 효과를 배가시켰다는 점에서도 김연아는 아사다 마오를 압도했다고 평한다. 아사다 마오의 음악인 라흐마니노프의 합창교향곡「종」은 동일한 멜로디가 반복되도록 편집한 결과, 김연아가 연출한 음악적 변화의 효과를 놓쳐버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호정.「조지 거슈윈의 숨은 명곡 연아와 만나 생명을 얻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36644〉)

www.kci.go.kr

단계 높여주었다. 행위자와 관객의 이러한 상호성은 이른바 기존 문화 개념의 확대를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곧 뉴미디어의 가능성을 각성시키는 대목이다.

3.

밴쿠버 동계올림픽 폐막식은 디지털 시대 퍼포먼스의 진수를, 매체를 활용한 글로벌 리추얼의 가능성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행사였다.[7] 그리고 그 중심에는 차기 개최지인 러시아 소치와 밴쿠버를 동시에 화면으로 연결하는 장면이 자리잡고 있다. 이 장면은, 전세계인들이 물리적 거리를 넘어서서 밴쿠버 행사에 화면을 통해 참가하고, 또 그 화면 속 소치 화면을 통해 같은 시간 소치에서 치러진 행사에 함께 참여하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장치와 더불어 전지구적 문화행사에서의 뉴미디어 퍼포먼스의 미래가능성을 가늠하게 해주었다. 하지만 이 신예술의 가능성은 비단 계획된 폐막식 리추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김연아의 퍼포먼스에 관한 이 논의의 출발점은, 그것이 관중을 전제로 하는 시각예술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빙상장의 시간과 공간에만 제한되었다면, 미학적 효과와 영향력은 그다지 폭발적이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스포츠의 탈경계적 의미가 확대 ·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에서 뉴미디어가 담당할 지속적 역할과 효과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8] 본고에서는 김연아 현상을 뉴

7) 비단 김연아의 경기 뿐 아니라 폐막식은 탈경계 인문학의 '지구지역성' 영역의 분석대상으로도 유효하다. 이 행사에서 캐나다는 원주민, 이주자 등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의 '하나의' 얼굴을, 즉 글로컬리티의 재현물로서의 이미지를 전 세계로 전송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 이면에 감추어진 이율배반적 모순관계도 비판적 시각에서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이다.

8) 이 경우 비단 스포츠 중계를 둘러싼 미디어와 스포츠의 일반적 관계에 대한

www.kci.go.kr

미디어 퍼포먼스로 규정하고 이 시각에서 정밀하게 해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두 영역에는 단순히 1:1로 대응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이 글은 몇 가지 키워드를 활용한 새로운 시각의 단초를 제안함으로써 폭넓은 미래지향적 논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데 만족하고자 한다.

김연아를 글로벌 스타로 발돋움하게 한 공은 특히 대중매체에 돌려져야 한다. 이를 수단으로 하여 그녀는 좁은 빙상장의 한계를 벗어나 세계 어느 국가든, 사적 그룹이든 상관없이 시공의 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면서, 전 세계인에게 새로운 의미의 사이버스페이스, 시차 없는 동시성과 현재성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경기 현장과 관람객 사이에 존재하는 스크린을 매개, 즉 접촉면으로 하여 예술적 영향력과 감동의 경계를 전세계로 확장하였다는 의미에서다. 다매체와 관련된 논의의 맥락에서 두 가지 기본 개념인 뉴미디어 퍼포먼스와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스포츠 예술에서의 인터페이스 및 뉴미디어 퍼포먼스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 아직 보편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연구분야는 스포츠 환경이 나날이 진화되고 영향력이 확대되어 갈수록 잠재력이 무한한 영역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먼저 김연아의 경기와 인터페이스 개념을 연관지어 보자. 위키페디아의 정의에 따르면 인터페이스는 “사물 간 또는 사물과 인간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일시적 혹은 영속적인 접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물리적, 가상적 매개체”를 의미한다. 이 의미를 좀 더 확장시키면 두 영역 사이의 경계를 형성하는 표면으로서, 그 접촉면(face)을 빌려주어 두 영역을 소통하게 하는 장치이다(전혜숙 5). 이 정의를 넓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인터페이스의 의미는 우선 물리적 현실의 제한성을 넘어서게 한

연구 뿐 아니라,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효과와 영향관계를 비롯하여 미디어를 이용한 스포츠 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등 다양한 시각에서의 접근도 물론 가능하다.

www.kci.go.kr

다는데, 즉 양방향의 참여자 스스로가 접속면을 통해 전달되는 또 다른 현실에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데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김연아 현상을 인터페이스의 관점에 연결시키면 매우 흥미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된다. 김연아의 경우, 다른 스포츠와 비교할 때 순간변수가 많은 빙판 위의 예술이라는 점에서 스크린을 통한 인터페이스의 긴장감과 역동성은 더 증대된다. 스크린을 사이에 두고 관람자가 행위자에 더 밀착되어 갈수록 이 긴장감이 일체감으로 바뀌었던 경험은 아직 생생하다. 일단 여기서 짚어두어야 할 것은, 창조자인 예술가와 감상자인 수용자의 경계가 인터페이스를 통해 유동적이 된다는 점이다.

김연아와 인터페이스가 묶이는 지점에서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뉴미디어 퍼포먼스의 개념으로 이어진다. 우선 협의의 뉴미디어 퍼포먼스는 컴퓨터와 사용자간 인터랙션을 통한 퍼포먼스를 의미한다. 이 정의를 빌자면, 사용자와 기계간에 접촉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김연아의 경우는 엄밀히 말해 뉴미디어 퍼포먼스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 신개념 예술 행위의 목적 또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예술창조와 수용과정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점에서 김연아의 경기는 뉴미디어 퍼포먼스와 일정한 결과를 공유한다(김진현 118 이하). 다른 말로 하면, 뉴미디어 퍼포먼스에서 작동하는 상호주의적 창조-감상의 메커니즘은 왜 김연아의 스포츠 예술이 그처럼 큰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를 분석하고 이와 더불어 김연아 신드롬에 내재된 사회적 의미를 이끌어내는데 유용한 단서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창조와 수용의 일방성이 지양된다는 의미는 관중 또는 관객으로 인해 퍼포먼스가 고양 또는 완성된다는, 즉 감상자의 차원을 강조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9] 피겨스케이팅은 시간예술인 동시에 공간예술

9) 이는 1960년대 독자의 영역을 문학 연구의 새로운 차원으로 부각시켜 수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심미적 경험'(Ästhetische Erfahrung)의 분석에 중점을 둔 수용

www.kci.go.kr

이다. 마찬가지로 시간과 공간을 전제로 하는 연극의 경우를 상정해 보면, 관중과 예술가의 관계는 쉽게 이해된다. 일찍이 프랑스 배우 장 루이 바로(Jean-Louis Barrault)가 언급한 키워드는 이 맥락에서 매우 시사적이다. 그에 따르면 배우와 운동선수는 몇 가지 경험을 공유한다. 초기에는 청중 앞에서 긴장감에 시달리지만, 경력이 쌓여갈수록 관객의 힘을 오히려 자신의 예술을 완성하는데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수동적 관객은 예술의 완성도를 높이는 능동적 관객으로 진화된다. 마찬가지로 미적인 감정 aesthetische Emotion을 전제로 하는 관람스포츠인 피겨스케이팅에서 김연아의 연기도 배우의 그것에 비견될 수 있다.[10] 이에 따라 김연아-관중의 상호관계가 그녀의 예술의 완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는 - 스포츠 심리학의 영역에서 뿐 아니라 - 좀 더 다양한 차원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김연아의 관중이 경기장 내부의 관중에 국한되지 않고 미디어를 통해 중재된 관중까지도 포함한다는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동시성이다. 즉 경기 장소에는 없다 하더라도, 매체를 통해 동시적으로 수동적 관객에서 능동적 관객으로 바뀌는 메커니즘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우리는 뉴미디어 퍼포먼스의 메커니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듯이 김연아의 스포츠 예술은 좁은 의미의 뉴미디어 퍼포먼스에는 속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체에 의해 매개된 관중과 행위자의 상호관계를 뉴미디어 퍼포먼스 이론과의 접점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김연아의 퍼포먼스의 특징과 영향력, 그리고 그 시의적 의미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다.

미학의 멀티미디어적 변용이라고 할 수 있다.

10) 그러나 더 나아가 스포츠와 영화의 관계에 일찍이 주의를 기울였던 이는 쿠베르탱이었다. 관람을 전제로 하는 두 영역은 TV 매체의 주역으로 지금까지 지속되어 온 만큼, 예술가 즉 배우와 운동선수의 기능적 유사성은 여기서도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Anthony 102-104).

www.kci.go.kr

또한 뉴미디어 퍼포먼스에서 관찰되는 예술행위자와 창작자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퍼포먼스적 특징을 갖는 김연아의 수행성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흥미로운 전제를 제공한다. 연극, 음악 등 기존예술에서는 수행자의 그때 그때의 예술행위 뿐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작품 자체가 지닌 정체성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예컨대 어느 피아니스트의 베토벤의 소나타 연주가 갖는 의미는 특정 작품에 대한 해석 또는 재현행위로 제한된다.[11] 하지만 뉴미디어 퍼포먼스에서는 즉흥연주처럼 매번 새롭게 수행되는 예술행위가 중요하다(김진현 118이하). 이는 - 원형으로서의 - 작품에서 퍼포먼스로 무게 중심이 이동한다는 의미로서, 김연아의 경기를 예술로 규정하는 것을 둘러싼 논의에서 비중있는 시각을 열어준다.

엄밀히 말하자면 김연아는 수행과제를 스스로 구상한 창작자는 아니다. 김연아의 프로그램은 어디까지나 안무가 윌슨의 작품이다. 그러나 김연아는 이 프로그램이 예술로 '완성'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즉 단순히 작품 해석자로서가 아니라, 창조와 수용의 경계를 넘어서서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다. 바로 여기서 수행성을 전제로 한 뉴미디어 퍼포먼스의 이론과 실제에서 유효한 관점들을 김연아 신드롬을 설명하는 데 활용해 볼 수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김연아의 예술은 결코 뉴미디어와 기계적으로 관련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뉴미디어 퍼포먼스에서 작동하는 일정한 메커니즘을 통해 관찰할 때, 왜 그녀의 스포츠가 모든 관객에게 미적 공존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는가를 신선한 시각에서 설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12]

---

11) 고전음악에서 연주자의 '수행성'이 특히 부각되는 대목으로 기악곡이나 개별 악장 마지막 부분에 삽입된 카덴차(cadenza)를 연상할 수 있다. 카덴차는 연주자의 기교를 과시할 수 있는 솔로 독주부로, 보통 작곡자가 악보로 남기기도 하지만 연주자가 즉흥적으로 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12) 물론 이에 대한 정교한 이론적 설명은 다음 연구단계에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글에서는 - 앞서 전제했듯이 - 몇 가지 해석가능성의 단초를 타진하는데 만족하기로 한다.

www.kci.go.kr

4.

올림픽 경기는 전지구적 문화행사인 동시에 일정 부분 국가 간 대결을 의미하기도 하다. 특히 단체경기의 경우 팀은 민족 내지 국가와 동일시될 위험이 매우 크다. 고대 올림픽의 모범에 따라 성인, 개인, 남성만 경기에 참여시켰던 초기 근대 올림픽의 룰은 이러한 잠재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매우 이상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00년을 전후한 당시 전세계적으로 과열되었던 민족주의 정서를 가라앉히려는 정치적 고려였다고 가늠해 볼 수 있다. 한 세기 전, 개별 국가의 자국중심적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평화와 국제이해를 높이기 위해 올림픽의 부활을 주창했던 쿠베르탱의 의도는 어쩌면 100여년이 흐른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덕목 중 하나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시대적 맥락에서 김연아 현상을 '탈경계'의 지구지역적 측면에서 조명하는 것 역시 당연하고 시의적인 요청으로 보인다.

'지구지역성'이라는 개념을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한 여러 요소 중 과학기술, 특히 디지털 매체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인터페이스가 전세계에 동시성과 현재성을 실현함에 따라 - 특히 문화의 영역에서 - 시간과 공간의 경계는 의미를 잃게 되었고, 가장 완고한 국경조차 과거의 힘을 상실한 듯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 김연아 역시 세계인을 대상으로 미적 경험을 공유하게 하여, 새로운 문화아이콘으로서의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전지구적으로 확대시키는 일이 가능해졌다. 이에 상응하여 그녀의 경제적 가치는 비단 국내 상황에만 제한적으로 유효하지 않다. 2010년 동계올림픽 직후 김연아는 미국 경제전문방송 CNBC가 선정한 글로벌 기업들의 마케팅 섭외 예상 순위 2위에 올랐다.[13] 뿐만

13)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등장하는 광고 사례에는 인종주의의 극복과 탈경계의 의도가 반영되기보다는, 혹스의 의미에서 "타자의 이미지만을 소비하는 마케팅 전략의 형태"(이희은 58)가 노출될 뿐이라는 비판도 물론 설득력을 얻는다.

www.kci.go.kr

아니라 4월 29일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 영웅 부문에서 빌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에 이어 2위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리고 있다. 이처럼 어느 뛰어난 스포츠 스타나 예술인, 또는 정치인이 세계적 지명도를 얻고 열광적인 팬 그룹을 거느리게 된다면, 이 사실만으로도 세계국가주의나 탈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비단 세계적인 인기를 누린다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김연아는 여러 면에서 다른 스포츠 스타와 구분되는 예외적 현상이다. 굳이 브라이언 오서 코치를 떠올리지 않아도, 아래 열거되는 사실은 김연아가 보여주는 탈지역성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피겨스케이팅은 서구의 스포츠 종목일 뿐 아니라, 여기 사용되는 음악과 코치, 활동무대, 연습장소, 경쟁자, 팬 그룹 등등 거의 모든 면에서 김연아는 자기 국적에만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정황보다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실이 있다. 김연아의 글로컬리티는 그녀의 예술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김연아의 예술성은 예술의 민족주의, 순혈주의를 자연스럽게 - 일정 정도 수준에 머물렀음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 허물었다. 이를 통해 감히 단언할 수 있는 것은, 김연아로 인해 새로운 미의 기준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즉 그녀는 서구인의 체형에 맞게 개발된 스포츠 종목에서 서구 중심의 미의 기준을 넘어선 새로운 준거를 그 담론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시아적인 것만도, 그렇다고 서양적인 것도 아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줌으로써, 모두에게 유효한 공통의 감각체계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고 말할 수 있다. 김연아의 예술을 접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체험한 것은, 국적이나 기술적 요소의 부분들의 이름 등 개별사안들이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역동성과 더불어 자유로운 '예술'로서,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끼고 감동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것이다.[14]

김연아의 탈지역적 의미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피겨스케이팅의 변

www.kci.go.kr

방 출신으로 일약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한국인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낙관적 희망을 소수인, 소수국가에 심어줄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부러움의 대상이면서도 갈등의 소지는 적은(또는 없는), 민족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화해의 아이콘'으로서의 의미이기도 하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김연아에 대한 우리 국민의 대대적 열광을 과거의 국민적 이슈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다.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는 모든 면에서 집단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 모습들은 우리나라를 벗어난 곳에서는 한국인에 내재된 부정적 측면으로 조심스럽게 평가되기도 한다. 즉 한국인을 향한 부러움만큼이나, 그리고 우리의 해방감의 크기만큼이나 외부인이 가질 두려움의 무게도 짐작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다. 이유를 불문하고 소위 한국인의 민족주의 또는 국수주의, '유별난' 소란에 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에피소드들은 일종의 일체성에의 열정이었다는 점에서 김연아에 대한 그것과 공유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고 하겠으나,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만큼은 글로벌 차원에서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한국인의 그러난 집단의식에 대한 적신호, 서구인의 두려움 섞인 놀라움이 실상 우리가 더 주의 깊게 파헤쳐야 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김연아의 경우는 '개인'이 키워드가 된다. 이 열광은 우선 한 개인에 대한 또 다른 개인의 순수한 열광으로, 그 출발점 역시 매우 자발적이고 개인적이다. 집단적으로 보일지라도 그것은 사적 공간 속 개개인의 열광의 합이며, 또 거기엔 개인적 감상방법이 유효하다. 이 전제하에 한국의 집단주의에 대한 외부의 경계심은 애초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그리고

14) 반면 아사다 마오의 예는 우리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스포츠 한일전을 방불케 했다는 점에서 마오는 출발선상에서부터 국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뿐 아니라 고난도 기술인 트리플 악셀을 성공시킬 것인가 아닌가, 김연아를 누를 것인가 등등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한 세간의 호기심이 너무나 컸던 나머지 그녀의 예술성 전반에 걸친 관심은 애초 전제되지 않았던 것이다.

www.kci.go.kr

김연아의 예술에 내재된 승화적 특성도 이러한 '무장해제'에 큰 몫을 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김연아의 예술이 그 자체로 한국에만 국한되지 않은 국제적인 틀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탈민족주의에 큰 몫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한국적'인 핵이 내재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주는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다. 이들은 김연아의 동작에서 가장 강력한 한국적인 특징을 발견한다. 한 일간지 기사에서 이들 전문가는 김연아에게는 우리나라 춤꾼의 DNA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바로 '삼분박' 감각으로, '한 박자가 세 개로 나눠지는 리듬'에 대한 감수성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리 전통음악의 네박자 굿거리 장단은 서양의 네 박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이 리듬은 '하나 아 두우울 세에엣 네에엣'으로, 즉 네 개의 삼분박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이다. 결과적으로 직선형이 아닌 곡선형 리듬이 파생되면서, '속도와 강도의 완급'이 두드러진다고 강조한다. 이렇게 보면 네 박자 리듬에서 세 박자의 리듬이 내재되어 기본적으로 세 박자의 율동성이 더해진다. 특히 느린 박자의 멜로디에 맞춘 김연아의 동작의 율동미가 단연 돋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15] 이렇게 보면 김연아의 예술이 두드러지는 이면에는 한국적 리듬의 율동성이 자리잡고 있으며, 역설적으로 그것이야말로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게 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연아의 지구지역적 특징을 '탈경계'의 긍정적 각도에서만 평가하는 것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이에 대한 좀 더 예리한 학문적 분석과 비판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하나는 한국인 김연아, 동시에 세계적 스타

15) 그러나 이것은 빠른 동작에도 적용할 수 있다. 김연아가 빠른 박자에서도 섬세하고 여유있게 움직이는 이유를 바로 이 삼분박의 완급에서 찾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지영. 「연아에겐 한국춤의 DNA가 흐른다」. 〈http://news.joins.com/article/683/4037683.html〉)

www.kci.go.kr

김연아 개인이 느낄 수 있을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다. 다른 말로 하면, 김연아가 처한 글로벌한 외적 상황과 로컬한 또 다른 상황의 양면성을 지목하는 문제제기이다. 그녀는 글로벌과 로컬 사이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이 양자 간 가능한 충돌을 그녀는 인식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그 모순을 지양하는 방법은 어떻게 모색되고 있는지도 학문적으로 제기되고 해결되어야 할 질문들이다.

왜냐하면 일견 개인적으로 보이는 이러한 질문이 비단 김연아에게만 국한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컨대 미국프로골프(PGA)에서 활약하는 한국 국적의 여성프로골퍼, 또는 전세계의 무대에 서는 한국 여성 예술인들은 글로컬리티의 전면에서 다소간 정체성의 혼란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 혼란은 성장 및 교육환경에 따라 정도차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의 정체성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앞으로도 국가 간 경계가 다른 영역에 비해 훨씬 자유롭고 유동적인 예술 및 프로 스포츠 분야에서 활동하는 후속세대가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하지 않고, 건강한 자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학문이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한국인인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이들이 가진 내적 자산은 더 성숙한 사회적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동양 '여성'들을 향한 서구인의 열광의 이면을 분석하는 것도 시의적절한 과제라고 사료된다. 즉 김연아로 대표되는 이 일련의 동양 여성들이 서구사회에서 갖는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도 매우 가치 있고 흥미로울 것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 예를 들어 왜 권투는 흑인 스포츠인지, 왜 흑인 피겨스케이터는 드문지 등등의 질문을 포함하는 - 특정 스포츠에 내재된 인종적 특성 또는 편견에 대한 연구에 이르기까지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된 인종 연구들은 위의 시각에서 출발하는 미래의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스포츠와 인종의 역학관계를 바르트의

www.kci.go.kr

이론에 따라 아주 간단히 해석해 보자. 이 경우 백인 스스로 자기들만의 종목이라고 생각해온 스포츠가 있다면,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 백인이 스스로를 '탈명명화'한다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16](Barthe 146-147; 이희은 40).

마지막으로 짚고 싶은 것은, 김연아에게 '강요'된 민족주의적 함의에 관한 언론의 태도와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에 관한 문제이다. 본고에서 누누이 강조해 온 김연아의 탈경계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세계의 언론은 -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대결구도가 지속적 관심의 대상이었던 만큼 - 대일감정의 오랜 앙금을 언급하면서 한국민의 애국주의와 묶어서 김연아 금메달의 의미에 대해 보도했다. 한국인들에게 김연아의 쾌거에서 중요한 이슈는, 피겨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이라는 의미보다 일본 선수를 이겼다는 사실이라고 비약하는 보도까지 있었다. 그리고 일장기를 달고 출전했던 손기정 선수의 1926년 베를린 마라톤 우승과 비교하기도 했다. 외부의 보도는 차치하고라도, 우리나라 언론보도 및 일부 국민의 의견도 - 온도차를 보이긴 하지만 - 이런 해외보도와 중첩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김연아의 완성도 높은 예술적 경지에 대한 찬사를 전국민적 자부심, 민족 감정, 국익, 국격 상승, 선진국 진입에 대한 예견 등과 관련지으며 단순구도를 확대재생산하는 것이다.[17] 이렇게 보면, 지구지역성 시대에 지양해야 할 국가 간 경쟁의식을 부추기며 한 개인이 일구어낸 그 자체로 경이로운 문화적 업적을 편협한 시각으로 축소하는 국내외 스포츠 저널리즘의 행보는 지속적으로 감시해야할 대상이다. 더 나아가 한국민의 이

16) 연전에 미국 프로골프에서 활약하는 외국 선수들에게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물어 출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당국의 의도가 알려져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인종차별이라는 비난에 몰리자 곧 유야무야했으나, 이 발상은 유능한 한국 여류 골퍼들에 대한 두려움 내지 견제 심리가 반영된 에피소드임에는 틀림없다. 이 역시 넓은 의미에서 유색인종에 대한 일종의 '색깔 공포증 chromophobia'(Batchelor 22-23; 이희은 40)의 변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17) 「김연아의 선물, 국민도 눈물이 났다」. 〈http://news.donga.com/Column/Sasul/ 3/040109/ 20100227/26487126/1〉 참조.

www.kci.go.kr

미지를 왜곡하는 과장된 보도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책도 장기적으로 부심해 볼 과제라고 사료된다.

5.

앞 장에서 이미 민족주의와 젠더의 맥락에서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글로컬리티 문제에 노출되는 여성 스포츠선수나 예술가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젠더의 문제와 맞물리게 된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오래 전부터 여성을 국가나 민족의 근성 또는 이미지를 대변하는 존재로 보는 관점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족, 민족주의, 국가에 대한 연구문헌에서 젠더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논의는 그다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그런 논의가 누락된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는 아래 연구는 타당성을 지닌다. 박미선은 섹슈얼리티 요소가 민족 내지 국민국가의 근현대적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이라고 역설하면서, 민족과 민족주의의 젠더화된 성격에 주목한다(박미선, 「지구지역시대」31, 36; 박미선, 「민족경계」5-27). 바로 '지구지역성'과 '젠더'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제기는 탈경계 논의에서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린다.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 남성이 아닌 - 여성 운동선수나 예술가가 자국의 대외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사회의 메커니즘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김연아의 경우는 이 방향의 논의에서도 적절한 대상이다.

최근 어느 일본인 교수는 한 국내일간지 경제칼럼에서 다음과 같은 화두를 던졌다. 김연아가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후 일본에서는 한국기업의 국가경쟁력을 김 선수에 비유하는 논의가 유행이라는 것이다. 이 필자 역시 올림픽 금메달의 뚜렷한 목적의식을 앞세워 점수를 높이는

www.kci.go.kr

전략을 구사했던 김연아를 아사다 마오와 비교한다. 이어서 위험부담율이 큰 고부가가치 기술에 집착한 나머지 새로운 세계시장 개척에 실패한 일본 경제의 현주소를 고난도 점프인 트리플 악셀에 명운을 걸었던 마오에 오버랩시킨다.[18] 한편으로는 이런 비유가 자연스럽고 타당한 관찰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 과연 두 선수가 각자가 속한 국가의 경제 스타일, 더 나아가 국가 이미지의 대표성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이제껏 어떤 남성 선수도 이런 차원의 논거가 된 적이 없다. 이 기사에 비추어 볼 때, '왜 많은 분야에서 남성성이 곧 카논인 반면, 유독 여성성이 민족과 동일시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신화적' 상황은 비단 김연아에게서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기에, 특정 젠더, 특정 성을 가진 개인에 의해 국가 이미지가 제한되는 편견의 위험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즉 '왜 하필 여성인가'의 문제와 더불어 이런 동일시 현상의 이면에 내재된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심층 연구도 필요하다. 김연아의 에피소드는 이에 대해 생생하고 시의적인 예를 제공해주고 있다. 관련 연구들을 통해 국가 이미지 형성에 있어서 여성전문인들에게 부과된 문화적-젠더적 역할에 대해 보다 진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수십년 동안 힘겹게 탈신화화 되어온 여성성을 재신화화하는 역주행이 다시 시작된 것은 아닌지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도 김연아는 다양한 젠더 연구의 단초를 제공해 준다. 우리에게 김연아에 버금갈 남성 피겨스케이터가 없다는 사실을 차치하고라도, 왜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여성 피겨선수들만을 유독 주목하는가에 대해 질문을 제기해 보자. 이 관심을 혹자는 '프리미엄 이미지'로 평가하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피겨스케이팅을 전통적 의미의 아름다움을 목표로 하는 미학적 퍼포먼스로 간주한다면 이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18) 후카가와 유키코. 「'김연아 같은' 한국기업들, 하지만 다음은?」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5/2010030501660.html 참조.

www.kci.go.kr

결과다. 이 종목의 율동성은 발레와 일정 부분 공유한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개별 스포츠 종목과 젠더의 관계, 스케이팅 동작의 젠더적 특성 등에 관한 연구는 미학적 관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연구 과제가 될 것이다.

젠더와 관련하여 김연아 선수를 주목할 필요는 또 있다. 쇼, 광고, 연예프로그램 등 경기 밖의 요소는 별개로 하고 여기서는 경기만을 대상으로 하자. 김연아는 카논으로서의 성의식을 불식시켰다. 즉 그녀는 성의 구분을 넘어서서, 남성에게만 의식되는 여성성이 아니라 여성들도 감탄하는 새로운 여성성의 상징이 되었다. 여성성이되 섹스어필이 전부가 아닌 여성성을 제시한 것은 - 전통 발레가 그렇듯이 - 김연아가 보여준 미학적 층위가 섹슈얼리티를 중립적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 예술가의 성별에 따라 정리해 보면, 확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편적 공식이 성립된다. 우선 여성예술가가 성공하려면 남성에게 어필하는 반면, 역으로 여성들의 배타적인 태도를 담보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공식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성취도를 관찰하는 경우에도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거꾸로 여성의 이해도가 높은 예술에는 남성들이 수긍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맥락에서도 김연아는 새로운 기준이 되었다. 김연아의 경우 특이한 점은, 그녀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별과 관련해서 어떤 특기할만한 그룹을 형성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일종의 합을 이루어냈다. 여기서는 좁은 의미의 여성성이 유일한 척도나 기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미학적인 완성도만이 유효하다. 그녀의 예술행위의 현장, 그 클라이막스에서는 행위자나 감상자 모두 성의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다. 본인 스스로, 그리고 타인도 남과 여의 대결구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다. 이런 이유에서 김연아는 여성예술인에 대한 평가의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고 간주된다.

상대적으로 어떤 연예인보다도 안티그룹이 없이 승화된 관심을 끄는 김연아의 등장으로 인해 - 특정한 의미에서 경쟁관계에 있다고 할 수

www.kci.go.kr

있는 - 일련의 연예 스타들이 어느 정도 긴장하고 있다는 말도 들린다. 특히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또래라는 점에서 비교될만한 소위 연예계 소녀그룹 · 소년그룹과도 뚜렷이 구분된다. 성적 이미지를 앞세운 상품가치가 아닌,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 자신만의 업적을 당당히 일구어낸 김연아는 건강한 젠더의식의 유용한 사례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6.

'김연아'는 아직도 진행 중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든 그녀에 대한 평가 역시 진행 중이다.[19] 하지만 중간 평가의 의미로 말하자면, 동계 올림픽의 김연아는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적 요소를 결론으로 남겼다. 완벽의 중요성을 그 짧은 4분 9초안에 단적으로 구현하였으며, 그것으로 '분발하는 에너지를 삼을 것'을 개개인과 사회에 주문한 것이다. 그것은 적당주의로부터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또 다른 면에서 정정당당한 승부의 아름다움과 성취감을 보여줌으로써 비리와 우회로를 거치지 않아도 충분히 성공적일 수 있음을 웅변했다.

하지만 김연아가 우리 사회에 가져다 준 가장 가치 있는 기여 중 하나는 인문적 · 예술적인 감수성을 다시 일깨웠다는데 있다. 좁게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의미에서의 카타르시스를 사회적 카타르시스로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줌으로써 개인과 사회가 - 일회성이긴 하지만 - 순화의 경험을 공유하게 했다.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은, 그녀의 예술이 선사한 감성적 차원의 감동을 사변적 · 철학적 관점으로 넓혀볼 수 있는 지속적

19) 기술적인 면에서의 김연아에 대한 평가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2월 28일자 동아일보는 세계 8인 전문가의 평가를 빌어 김연아의 예술성에 대해서 유보적인 기사를 실었다.

www.kci.go.kr

인 기회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고는 - 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 동계 올림픽에서 절정을 맞은 김연아 신드롬에 인문학적으로, 좁게는 '탈경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시도였다. 여기에는 인문학의 사회적 가치, 즉 효용성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시의적 사회현상의 실체와 그 확장된 의미를 분석하는 도구로 인문학의 지평을 확대할 때 실현가능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김연아는 본 논문의 범주로 제한했던 다매체, 지구지역성, 젠더의 영역 뿐 아니라, 본고에서 언급하지 못한 많은 영역에서 '탈경계'가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김연아가 금메달을 확정짓던 순간, 1984년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 오서와 금메달을 겨루었던 승자이자 현재 NBA 해설자인 스캇 해밀턴(Scott Hamilton)은 '오서가 금메달을 땄다'는 발언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 필자에게 그 말은 오서에게 금메달의 공로를 돌린다는 의미라기보다, 코치 오서와 선수 김연아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이것은 교감의 문제로서, 달리 표현하면 미학적 동일시라고 보아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더 나아가 이 교감은 관객과의 교감이기도 했다. 관객이 응원해 주고 있다는 느낌은 김연아에게 상상 이상의 결과를 안겨다 주었다. 그리고 해낸 사람과 본 사람 모두 카타르시스를 공유함을 통해 젠더, 민족과 국가 등 여러 차원으로 존재하는 유형무형의 '경계'를 사라지게 했다.

'탈-'(Trans-)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려면 장벽의 의미가 없어져야 한다. 김연아를 통해서 많은 세계인은 짧은 시간이나마 이것을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19세기 독일의 문호 괴테는 그때까지 아직 생소했던 세계문학의 이념을 누누이 역설했다. 이 개념에서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던 관점은 문학의 역할이다. 문학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민족 상호간 이해를 도모하게 될 때 국민문학은 세계문학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괴테의 이 개념을 보다 확장된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세계문학은

www.kci.go.kr

초시대적이며 보편적인 영향력을 가진 문학작품들을 말한다.[20] 19세기 세계문학의 탈경계적 의미는 21세기 김연아의 퍼포먼스로 다시 한 번 인문학의 화두가 되었다. 이 점을 인식하는 시점에 이른다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김연아'에 열광해도 될 것이며, 그 열광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병옥, 안삼환, 안문영. 『도이치문학용어사전』.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김진현. 「인터페이스의 매체성 - 뉴미디어 퍼포먼스에서의 체현미학 연구」. 『탈경계 인문학』 2.2(2009): 117-140.

김호정. 「조지 거슈윈의 숨은 명곡 연아와 만나 생명을 얻다」. 조인스. 2010.2.27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4036644〉

박미선. 「지구지역시대 젠더이론의 쟁점: 여성, 민족, 국가, 그리고 재기억의 텍스트 정치」. 『탈경계 인문학』1.1(2008): 29-58.

_____. 「민족경계 안팎의 여성과 남성: 민족주의의 감정정치와 신체훈육」. 『영미문학페미니즘』17.1.(2009): 5-27.

송두헌. 「우리도 이런 '문화적 아이콘'을 갖다니」. 한겨레 21, 2010.2.19

이지영. 「연아에겐 한국춤의 DNA가 흐른다」. 조인스. 2010.2.28 〈http://news.joins.com/article/683/4037683.html〉

이희은. 「미디어에 나타난 색의 재현과 문화 정체성」. 『탈경계 인문학』 2.3 (2009): 35-66.

전혜숙. 「미술 속의 인터페이스 - 르네상스 이후 미술에서 스크린과 프레임 개념의 변용」. 『탈경계 인문학』 2.3(2009): 5-33.

장미영. 「'파우스트' 모티브의 음악적 현상학 - 19세기 독일 표제음악에 관한 문학적 소고」.『외국문학연구』35(2009): 237-262.

후카가와 유키코. 「'김연아 같은' 한국기업들, 하지만 다음은?」. 조선닷컴.

20) 도이치문학용어사전. 김병옥, 안삼환, 안문영 엮음.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497쪽 이하 참조.

www.kci.go.kr

2010.3.5〈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05/2010030501660.html〉

「김연아, 글로벌 브랜드로」. 조선닷컴. 2010.2.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2/27/2010022700029.html〉

「김연아 동계올림픽 경제효과 5조 2350억원」. 동아닷컴. 2010.3.8 〈http://news.donga.com/3/all/20100308/26689655/1〉

「김연아의 선물, 국민도 눈물이 났다」. 동아닷컴. 2010.2.27 〈http://news.donga.com/Column/Sasul/3/040109/20100227/26487126/1〉

Anthony, W. J. *Sports and physical education as a means of aesthetic education*. 〈http://www.la84foundation.org/OlympicInformationCenter/OlympicReview/1969/ore17/ore17l.pdf.〉

Barthe, R. *Mythologies*. London: Paladon, 1972.

Batchelor, D. *Chromophobia*. London: Reaktion Books, 2000.

Finscher, Ludwig.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in 10 Bänden. 2. neubearb. Ausg. Bd.2*. Kassel/New York: Bärenreiter Verlag 1994 ff.

www.kci.go.kr

ABSTRACT

Kim Yu-Na Syndrome from the Perspective of Trans-Humanities

Mi-Young Chang
(Ewha Womans University)

Kim Yu-Na not only inspired many Koreans to become unified in pride by winning the figure skating gold medal in the 2010 Vancouver Winter Olympics Games, sh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Korea. This article attempts to redefine and reconstruct Kim's sociocultural value in the context of the humanities. In other words, it aim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humanities: "Why are Koreans so enthusiastic about Kim Yu-Na and her artistic performance?"

Through the art of her sport, Kim Yu-Na instigated the idea of "pushing beyond the boundary" and became a role model for many people throughout the world. Based on such a supposition, the author will analyze the Kim Yu-Na Syndrome using the idea of "pushing beyond the boundary." This category of "pushing beyond the boundary" here deals with only three fields in the Trans-Humanities, Human Korea-Project by the Ewha Institute of Humanities: locality, gender, and multimedia.

However, I do not expect to render a complete academic study

www.kci.go.kr

on the Kim Yu-Na Syndrome in this article. I wish to examine effective methods for basic research from various points of view. I am certain that when Humanities broadens its horizon to the contemporary cultural phenomena such as the research in this paper, the social value of the humanities and their benefit will develop and expand.

주제어: 수용미학(Rezeptionsästhetik), 인터페이스(Interface), 지구지역성(Glocality), 표제음악(Programmmusik)

논문제출일: 2010. 04. 30
심사완료일: 2010. 05. 15
게재확정일: 2010. 05. 15

www.kci.go.kr

www.kci.go.kr